

아너 소사이어터 8명·나눔명문기업 4곳, 지역사회 나눔 ‘한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총 12억원 기부 약정

아너 210명·나눔기업 30곳으로 확대…기부문화 확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해 개인과 기업이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면서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 8명과 나눔명문기업 4곳이 새롭게 탄생했다. 이들은 모두 12억원의 기부를 약정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뜻을 모았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오전 광주특별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민형배 시장과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신규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 및 나눔명문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아너 소사이어터·나눔명문기업 신규 가입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너 소사이어터 8명과 나눔명문기업 4곳이 신규 가입했다. 이번 가입으로 광주시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은 202명에서 210명으로, 나눔명문기업은 26곳에서 30곳으로 각각 늘었다.

아너 소사이어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일시 또는 5년 이내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원 이상의 기부를 5년 이내 약정하고, 가입 시 2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기업·법인이다.

신규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은 △203호 서정성 아이안과 대표원장 △204호 류경주 서광병원 경영원장 △205호 이민순 ㈜한국건설산업시험연구원 대표이사 △206호 위지연 ㈜정산바다 대표이사 △207호 임영우 ㈜에니셀 회장 △208호 강웅선 ㈜대웅에스앤티 회장 △209호 임수연 ㈜신호 대표이사 △210호 노은미 은누리예술악 대표 등 8명이다.

나눔명문기업에는 △27호 ㈜레원 (대표이사 김준혁) △28호 ㈜대웅에스앤티 (회장 강웅선) △29호 ㈜인팩 (대표이사 정용섭) △30호 ㈜후테크 (대표이사 박정연)가 이름을 올렸다.

기존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들도 참석해 신규 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민형배 시장과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 및 나눔명문기업 관계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원들의 가입을 축하했다. 이상철 회원 대표를 비롯해 윤홍현, 조성은, 최무진, 노정국, 박인하, 허영숙, 김안나, 김은자 회원 등이 함께 자리해 나눔의 뜻을 나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광주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개인과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민형배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맞아 개인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동참해 주신 것은 시가 지향하는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는 뜻깊은 사례”라며 “소중한 기부 약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희망으로 전달되고,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이 나눔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광주특별시의 새로운 출범을 지역사회가 뜻깊은 나눔으로 기념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송원초는 지난 19일 체육관 송원관에서 관현악단 단원 78명을 대상으로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송원초등학교

마에스트로 금난새, 광주송원초서 특별한 ‘음악여행’

관현악 여름캠프서 오케스트라 클리닉…78명 단원과 합주

광주송원초등학교가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학생들에게 특별한 음악 여행을 선사했다. 광주송원초는 지난 19일 체육관 송원관에서 관현악단 단원 78명을 대상으로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2026학년도 관현악 합주 여름방학 캠프’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연주자들이 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직접 호흡하며 음악적 경험을 나눴다.

이날 1부에서는 금난새 지휘자의 위트 있는 음악 이야기와 연주자들의 시연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음악과 예술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송원오케스트라 클리닉’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금난새 지휘자의 맞춤형 지도에 따라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과 브람스 ‘헝가리안 무곡 제1번’을 연주하며 합주를 다졌다.

금난새 지휘자는 학생들의 뛰어난 연주 실력과 높은 집중력, 빠른 습득력에 감탄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학생들은 합주 지도를 통해 악기 연주법뿐만 아니라 음악가로서의 자세와 서로 다른 악기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도 배웠다.

특히 금난새 지휘자의 배려로 학부모들의 청강도 허용돼 자녀들의 연주 모습을 지켜본 학부모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도청년새마을연합회, ‘일일부모’ 행사

돌봄 필요 아동들에 안전교육·체험활동 제공

전남도청년새마을연합회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일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3~6학년 아동들과 청년새마을연대회장들이 함께하는 ‘일일부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새마을청년들과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따뜻한 나눔과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새마을청년들과 아동,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플레어랜드, 영화관람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식사, 기념촬영, 기념품 전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동들이 마음껏 웃고 뛰놀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함께하는



즐거움’과 ‘나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전했다.

임대일 전남도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청년들은 지역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과 함께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신문윤리강령 준수…개인·단체 권리 존중할 것”

광남일보 임직원 신문윤리강령교육

이승배 사장 “왜곡되지 않는 보도해야”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20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사장·편집인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에서 개인과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용 훼손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독자에게 반론 등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재원의 사생활을 침해 방지에 대한 내용도 강조했다.

홍보기사 게재 시에는 상업성 배제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허위나 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투기나 사행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당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20일 오후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부했다. 광고에서 상호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 주소 등을 밝힐 것을 안내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독자의 불만처리 임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장은 독자의 불만사항 처리 내용을 알려주고 독자불만 접수자 신원 노출 금지할 것을 언급했다.

만약 독자가 구독 중지를 요청해도 화유나 구독을 강요하는 행위는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승배 사장은 “언론은 개인과 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며 “그들의 명예와 신용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독자에게도 반론 등을 펼쳐 생산적인 의견 교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강령을 준수해 언론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대양산단 수산기업인협의회는 지난 19일 교향사랑기부금 2000만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 기탁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청

목포대양산단수산기업협의회 소속 9개 업체

목포 발전 동참…교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기탁

대양산단 수산기업인협의회는 지난 19일 교향사랑기부금 2000만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 기탁했다.

수산기업인협의회는 교향사랑기부제 시행 첫째인 지난 2023년 21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기부에 동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수산기업인협의회는 목포 대양산단에 수산기업들로 구성됐으며, 김 등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김 수출액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지자체 가운데 김 수출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이번 기탁에는 협의회 소속 9개 업체 대표가 참

여했다.

최민순 선진수산영여조합법인 대표 300만원, 장문준 하이준 대표 300만원, 임복남 ㈜가리미 대표 200만원, 진종현 대성푸드플러스㈜ 대표 200만원, 한수현 대천김주 대표 200만원, 정동훈 만전식품㈜ 대표 200만원, 오종인 어업회사법인 ㈜대륙 대표 200만원, 광명송 엠에스씨푸드 영여조합법인 대표 200만원, 장오만 ㈜해농 해양캠퍼스 대표 200만원 등을 각각 기부했다.

최민순 협의회장은 “목포의 미래 성장동력인 수산식품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향사랑기부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북광주농협, 농촌 어르신 찾아

사랑의 이·미용 봉사활동 실시

농협광주본부부는 북광주농협이 최근 관내 신기마을과 금당마을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랑의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무더운 여름철 기온이 불변하거나 고온 여건 등으로 시내 미용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고령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교향사랑주부모임(교주모) 회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미용 전문 기술과 재능을 가진 교주모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커트와 새치 염색을 진행했으며, 농협 임직원들은 염색약 도포를 돕고 샴푸와 안마, 발벗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해 깔끔하게 단정된 뒤 거울에 비친 모습을 확인하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일부 어르신들은 봉사자들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